

남북한 통일과 국제사회

1주차

고상두 교수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K학술확산연구센터
K-ACADEMIC DIFFUSION RESEARCH CENTER

01 과목소개

독일은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룩했는지 그 성공 과정을 살펴보고
독일은 과연 어떤 문제점과 후유증을 안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과목은 국제사회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의 문제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02 강의방식

강의

퀴즈

03

주차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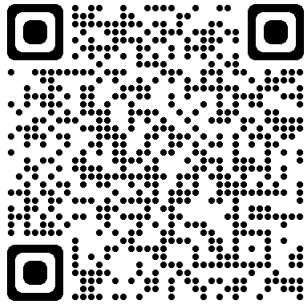
1주차	한반도 분단과 극복 과제
2주차	통일의 조건과 방안
3주차	독일의 신동방정책
4주차	한국의 햇볕정책
5주차	동서독 접경의 갈등과 협력
6주차	남북한 접경 갈등과 협력
7주차	남북한 인적 교류와 인도적 지원
8주차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9주차	유럽의 대북정책
10주차	통일독일의 내부통합과 시사점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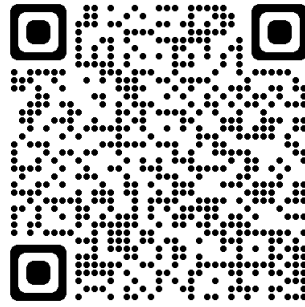
1주차 키워드

- 한반도 분단
- 분단의 고착화
- 독일의 통일
- 통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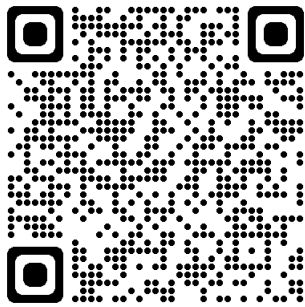
1주차 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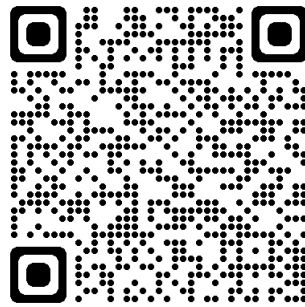
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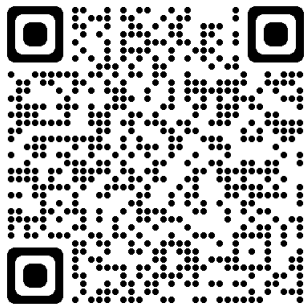
2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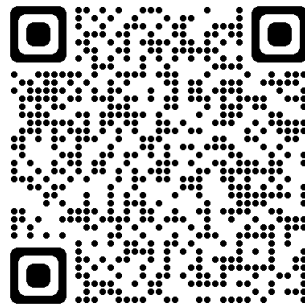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강의

한반도 분단과 극복 과제

1-1 한반도 분단의 시작

오늘 한반도 분단과 극복 과제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연세대학교 고상두입니다.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 한반도의 분단 역사와 원인을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인들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통일 후 과거 청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 계획입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반도의 분단 원인에 관하여 알 수 있고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 이후 과거 청산 사례와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여러 개의 국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한민족이 통일 국가를 가지게 된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668년입니다. 그 이후 1910년까지 한민족은 하나의 통일 국가를 가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민족은 1,000년 이상 통일 국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10년에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1945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되면서 한국에는 두 개의 코리아가 생겼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민족은 1,000년 이상 하나의 통일 국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분단의 역사는 불과 70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반도에서 분단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통일이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네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냉전이 생겼습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의 두 개의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코리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 전쟁을 통해서 두 개의 정부가 무력적인 충돌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에는 미군이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남한에 미군 군정이 시작되었는데 미군은 남한에 미국식 자유 민주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상 UN의 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틀어서 한반도의 자유 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반대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자유 선거가 불가능했고 그 결과 남한에서만 UN 감시하에 자유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1948년 8월에 남한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식민지하에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또 미국의 영향 때문에 상당히 반공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그런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방식은 외교를 통한 독립, 그리고 미국을 활용한 독립, 그런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북한의 경우에는 소련이 점령하면서 소련식 소비에트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UN 감시하에 한반도 전체에서 자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로 볼 때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인구보다 많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 북한이 좀 불리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러한 이유에서 UN 감시단의 방문을 반대했고, 결국은 남한에서 먼저 자유 선거와 단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 북한도 곧 이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요. 김일성 수상은 식민지 독립 시절에 만주에서 반일 게릴라 투쟁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경에 일본의 토벌을 피해서 소련으로 피신하여 소련군 대위로 복무하다가 소련군과 함께 북한으로 진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소련식 소비에트 체제를 도입하는 데 적절한 인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냉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북한에 소련과 미국이 점령을 했던 것은 사실상 분단을 초기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행정적으로 편의에 따라서 점령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목표와 달리 결국은 남북한이 분단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돌입하게 되는 냉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냉전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전은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소련의 팽창 정책, 그리고 그렇게 팽창하는 소련을 견제하는 미국의 대소련 정책에 의해서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소련이 팽창을 하기 시작했던 것은 2차 대전 이후고요. 그 이전에는 소련이 팽창적인 정책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주변 국가들, 특히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유럽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와 달리 소련은 상당히 소극적인, 그리고 소련 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전념하는 그런 일국 사회주의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럽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소련이 본격적인 팽창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독일을 패퇴시키고, 그리고 소련이 점령했던 동유럽 지역에 소비에트 체제를 이식시키는 등 유럽의 절반이 사회주의 국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의 모델은 고도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또 비교적 사회적인 평등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중국의 고도성장과 중국의 사회적 평등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2차 세계 대전 직후의 소련의 부상과 팽창, 그리고 미국의 견제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 정책을 취하게 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당시 2차 대전으로 인해서 파괴된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돕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 두 가지 아이디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마셜 계획입니다. 마셜 플랜을 통해서 미국은 서유럽의 전후 경제 재건을 돕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대규모의 재정적인 지원을 서유럽에 했고요. 군사적으로는 NATO를 창설하여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함께 군사 동맹을 건설하여서 구소련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공동으로 방어했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이 현상을 고착화시킨 것은 한국 전쟁입니다. 먼저 한국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에 두 개의 단독 정부가 생기고 난 후 북한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주국이었던 소련에게 통일 전쟁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북한의 전쟁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통일 전쟁이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50년도에 드디어 스탈린이 북한의 전쟁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전해인 1949년도에 국제 정치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동북아 지역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장개석과의 오랜 내전 결과 중국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였고 결국은 장개석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중국 전 대륙을 공산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 중국이 도울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소련이 두려워했던 것은 미국의 핵무기였습니다. 그런데 1949년도에 소련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됨에 따라 미국이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949년도에 국제적으로 큰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한국 전쟁은 국제 정치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또 거꾸로 한국 전쟁도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냉전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과 소련 간에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냉전'이라고 불렀는데 냉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냉전 시대 최초의 열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극복 과제

1-2 한국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그리고 이러한 한국 전쟁은 단순히 동북아 지역에 국한해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당시 서방과 소련이 대치하고 있던 유럽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독일의 재무장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또 독일이 NATO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유럽 내에서는 여전히 독일에 대한 안보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독일이 전쟁을 두 번씩이나 일으킨 것은 불과 20년 정도의 터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또 제3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적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독일을 자신들의 군사 동맹에 가입을 시킨 것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소련의 군사적인 위협이 얼마나 목전에 왔는지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은 약간 달랐습니다. 소련의 경우에는 주로 물자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전쟁 물자, 그리고 군사 장비를 지원했고요. 특히 한국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규모의 탱크 부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서 북한군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련이 이처럼 북한을 지원했던 이유는 바로 팽창적인 대외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소련은 더 이상 소극적으로 자국 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주의 모델을 전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유럽, 그리고 동북아,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반도에서 팽창적인 정책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소련은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특히 군사적인 전진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련은 늘 부동항을 필요로 합니다. 얼지 않는 바다, 얼지 않는 항구를 늘 찾아왔는데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군사 기지를 활용하게 되면 소련의 입장에서는 훨씬 전략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의 지원은 군사 장비가 아니라 직접적인 병력의 파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내에서 특히 조선족으로 이루어진 중국군 사단을 북한에 파견했고요. 중국이 저런 북한을 지원했던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전, 즉 장개석이 대만으로 지금 후퇴한 상황에서 또 언젠가는 대만과 전쟁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만을 통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소련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북한을 도왔습니다.

한국 전쟁은 약 3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 6월에 시작해서 1953년 7월에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3년간의 전쟁이지만 실질적인 전쟁은 1년이었고요. 2년 동안의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3년 만에 휴전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남침한 이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한 달 만에 남한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UN군이 참전함으로써 해서 북한 거의 전역이 다시 미군과 UN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다가 중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과거 원래의 분단선이었던 삼팔선 인근 분야로 전선이 교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전 협정을 통해서 DMZ, 비무장 지대가 설치되었는데요. 이 비무장 지대의 위치가 삼팔선과 거의 유사한 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무장 지대,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하나의 지대입니다. 이 비무장 지대는 두 개의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입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일종의 경계선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군사 분계선을 두고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해서 크게 양쪽으로 4km에 해당되는 완충 지대가 설치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무장 지대, DMZ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DMZ가 설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남북한 간에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되었고요. 휴전 협정 이후 양자 간에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총 13,000명에 달하는 포로를 보냈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83,000명에 달하는 포로를 보냈습니다. 이 포로 교환의 수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포로의 경우에는 남한군이 약 8,000여 명, 그리고 UN군이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포로의 경우에는 북한군이 약 76,000명, 그리고 중국군이 약 7,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쟁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전 국토가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산업 시설의 절반이 파괴되었고 주택의 3분의 2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전쟁 직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UN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것은 한국에서의 산업 시설과 주택, 기반 시설, 전 국토가 파괴되었다는 그 현상을 잘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만 명의 가족이 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가족들이 남북한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심화는 남북한의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일당 독재가 더 공고화되었고요. 남한에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데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반공이라는 국시하에 정치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데 반공법을 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체결되었고 오늘날까지 주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사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민간인의 피해의 경우 북한에는 약 60만 명, 남한의 경우에는 약 100만 명의 민간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군 병력에 대한 피해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북한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약 40만 명, 그리고 남한의 경우에는 약 20만 명 정도, 북한이 남한보다 약 두 배 정도의 병력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중국군의 경우에는 60만 명의 병력이 한국 전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한군과 남한군을 합친 수만큼 중국군이 이 땅에서 사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비교적 미국이나 UN군의 피해는 다소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약 36,000명, 그리고 UN군의 경우에는 3,000명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통일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이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인의 약 50%에서 60% 정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통일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 열망의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비교적 통일을 찬성하는 그런 비율은 20%에서 한 30% 정도 되고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한 20%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통일을 적극적으로나 혹은 소극적으로나 원하는 인구의 비율은 거의 90%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세대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과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기준으로 20대와 30대, 40대, 50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20대가 79%를 보였다면 50대는 83%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2018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20대는 62%로 줄어들었고요. 50대는 여전히 83%로 변함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는 점차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와 달리 오늘날 통일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나이 든 세대의 경우에는 통일에 대한 감성적인 지지가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통일을 보다 좀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아마 그것은 통일 비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통일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생각이 있느냐는 설문 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요. 부담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국민들도 21%가 있습니다. 그리고 1만 원 이하가 24%, 그리고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가 22%, 그리고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가 16%, 그리고 11만 원에서 20만 원이 5.6%, 그리고 21만 원 이상이 9.9%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대략 1인당 통일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0만 원 이상을 부담하겠다고 해야만이 현실적인 통일 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0만 원 이상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국민은 약 15%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의 의지는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독일의 경우에는 동·서독의 경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대략 5분의 1 내지는 6분의 1 정도의 경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남북한의 경우에는 경제 격차가 50:1입니다. 통일 이후에 남북한이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만들어 내려면 동·서독에 비해서 적어도 10배 이상의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단순 계산식으로 볼 때 1인당 100만 원의 통일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러한 계산이 점차 젊은 세대들에게는 보다 합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왜 통일을 찬성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그 국민의 비율이 2007년도에는 50%에 달했습니다. 즉, 국민의 절반이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통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그러한 민족주의적 관점의 통일관이 다소 쇠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34%의 국민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극복 과제

1-3 통일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

이에 반해서 다른 이유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비율이 2007년도에는 19%였는데 오늘날에는 32%까지 늘어났습니다.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국민이 34%, 평화적인 이유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국민이 32%니까 지금 현재는 바로 민족주의적인 통일관과 평화주의적인 통일관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통일을 할 경우 남북한이, 한반도가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보다 경제론적인 그런 통일관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는 약 18%의 국민이 이러한 통일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인들은 비교적 영향력은 약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국민의 비율이 약 10% 정도 내외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민의 대북 인식을 살펴보게 되면요. 남북한은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6년 기준으로 국민의 43%가 남북한 간의 협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북한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꽤 있습니다. 약 21%의 국민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하게 북한은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약 14%가 되고요. 그와 정반대로 북한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약 1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과는 일종의 경쟁 관계라고 보는 국민이 약 8%입니다. 경쟁 관계라고 하는 이 비율을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을 협력 대상이나 혹은 북한을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그런 국민의 비율은 약 한 55% 정도 되고요. 북한을 두려워하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한 35% 정도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민은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절반을 다소 조금 넘는 비율이 되고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약 3분의 1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한국민이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리고 포용적인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남한에 있는 국민들의 인식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56%의 국민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 21%의 국민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치를 합치게 되면 약 77%의 남한 국민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해서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북한의 분단을 더 촉진하고 있고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문제에서 통일과 북한 핵무기,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극복 과제

1-4 독일의 통일 후 과거청산 논쟁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 아마도 과거 청산의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친일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과거 청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남북한 간에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청산에 대한 논쟁이 없지만 이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과거 청산 논쟁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구동독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반인권적 실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40년간의 구동독 공산 체제에서 25만 명이 불법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만 명의 정치범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다수가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왔습니다. 이때 데려올 때에 서독 정부는 동독에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대략 1인당 한국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몸값을 치르고 정치범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독으로부터 탈주해서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주민이 약 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300만 명은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하기 이전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도에 동·서독이 분단되고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나고 나서 약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에 300만 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탈한 것입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는 동독에서 탈주한 주민은 불과 1,0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여러 가지의 과거 청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은 사법 처리, 해임, 사면, 배상, 진상 규명, 이러한 것들이 구동독에서 이루어진 과거 청산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과거 청산의 방식을 분류를 하게 되면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 청산, 이것은 처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법 처리, 해임, 그리고 처벌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바로 사면이 되는 것이고요. 피해자를 대상으로 과거 청산을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배상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청산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처리 방식은 진상 규명입니다. 과거 청산의 경우에 가장 최대로 엄격하게 하는 것은 사법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최소한으로 과거 청산을 하는 것은 사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법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구동독의 경우에는 통일 이전에 동독의 반체제 시민 세력이 민주화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구동독의 공산당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 동독의 반체제 시민 세력들이 공산당의 인권 탄압에 대한 처벌을 요구를 했고요. 곧 통일이 되고 나서는 서독 정부가 인권 침해에 대한 처리를 위한 특별 수사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 처리는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형사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를 묻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죄를 묻는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동독의 경우에는 과거의 동독 시절에 발생했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그 당시에 처벌이 가능한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독재 체제의 경우에는 그러한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설혹 동독 시절에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의 논쟁점은 바로 범죄 행위의 불가분성인데요. 동독의 정권은 전체주의 정권으로서 인권 침해의 경우에 지도부가 명령을 하고 국가 기관이 지도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의 거대한 억압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을 하려면 개개인별로 범죄의 잘못된 몫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범죄 행위를 불가분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 단체 가담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국가의 경우에는 범죄 단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법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세 번째의 논쟁점은 바로 공소 시효의 문제입니다. 동독에서의 인권 침해는 주로 단독 정부가 생기고 난 초기, 1950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이 되고 난 1990년대에는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난 문제가 있습니다.

동독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동독에서도 반대가 있었고요, 서독에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구권력 엘리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법 처리는 정치 재판이라는 반대를 했고요. 즉,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사법적인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체제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라는 그런 논리인 것이고요. 또 다른 논리는 바로 보복 재판이라는 것이죠.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체제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체제 경쟁에서 진 나라를 이긴 나라가 법으로 처단한다고 하는 승자 재판이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중 처벌이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동독은 이미 체제가 붕괴하고 서독에게 흡수·통합됨으로 해서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금 사법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는 바로 구동독의 엘리트들이 반발하는 논리고요.

서독의 경우에도 사법 처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독의 사민당은 서독이 동독을 처벌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서독의 사민당은 동방 정책을 통해서 동독과의 화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런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한 대상인데 오늘날 통일된 이후에 과거의 협력 파트너를 단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흔히 동독에서는 나치 독재와 동독의 독재를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 친일파 청산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과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 독재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치 독재의 청산 이후 또 통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동독의 독재를 청산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면서 과연 나치 독재와 동독의 독재는 유사한 것인지 혹은 다른 것인지를 비교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치 독재와 동독 독재는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한 결론에 따라서 처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나치 독재의 경우에는 엄격한 청산을 했고요. 동독에 대한 독재는 온건하게 청산을 했습니다.

나치 독재의 경우에는 독일인들이 과거 독일인들을 청산한 것이 아니라 전승 국가였던 미국과 소련 등이 의지를 가지고 나치 독재를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전승 국가가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을 열어서 과거 나치 독재에 대한 처벌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정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법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치 독재 체제에는 당시에 처벌 조항이 없었지만 사후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이 되면 사후적으로도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인권법의 적용입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서 뉘른베르크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치 독재범에 대한 체포,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서독의 사법부도 이러한 군사 재판의 선례에 따라서 지속적인 후속 처벌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동독의 경우에는 바로 나치 독재와 동독의 독재는 다르다, 왜냐하면 나치의 범죄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고 2차 대전으로 인해서 2,00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정도의 규모는 동독 독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규모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 나치 독재를 동독 독재와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치의 범죄는 자연법적으로, 그리고 보편적 인권법의 관점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동독 범죄의 경우에는 실정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거 동독 독재 체제 때 존재했던 법에 따라서 그 당시의 범죄를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반도 분단과 극복 과제

1-5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 실태

독일 통일 후 과거 청산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의 과거 청산을 했는데요. 그러한 방식들을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사법 처리 경우에 통일 이후 많은 주민들이 인권 침해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고발 건수가 약 450만 건에 관한 고발이 들어왔고요. 이 들어온 모든 고발 건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추려내서 직접 수사에 착수된 건수는 75,000건 정도 됩니다. 75,000건에 대한 수사를 해서 이 중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 우리가 흔히 재판에 넘긴다고 할 때 기소한다고 하는데요. 기소 건수는 1,000건에 불과합니다. 즉, 75,000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것은 1,000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00건 중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은 753건, 약 69%입니다. 나머지 약 31%의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의 무죄 판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아니면 재판 중에 사망해 버리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건수도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통일 이후에 과거 청산과 관련된 고발 건수가 450만 건이나 되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리된 건수는 753건에 불과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법적 낭비이며 시간적인, 비용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 처리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원하는 가장 엄격한 그런 방식이고요.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 처리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법 처리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성과를 가져오지도 못한다는 것을 독일 사례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과거 청산 방식은 동독의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권력 엘리트들을 해임시키는 것입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거대한 관료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계획 경제를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료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관료들은 주로 공산당원에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약 230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었는데요. 동독 인구가 약 2,000만 명이 되니까 약 10%가 조금 넘는 인구가 당원 출신인 것이죠. 그리고 관료는 그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관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의 대부분이 당원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공산당원의 대다수는 국가 관료로 근무를 했던 것이죠. 서독과 비교하게 되면 동독의 경우에 관료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서독은 관료가 인구의 약 7%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동독의 경우에는 1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비로 볼 때 동독의 관료는 서독보다 약 두 배에 달하는 많은 관료들을 가지고 있었죠. 통일 이후에 서독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료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었고 이와 함께 과거 청산의 차원에서 상당수의 관료들을 해임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일 이후에 서독 정부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직업 공무원 제도가 아니라 공산당원에서 관료를 충원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통일 이후에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 결과 많은 동독의 관료들이 해임이 되었는데 해고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해고, 다른 하나는 특별 해고입니다. 일반 해고란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관료가, 혹은 소속 기관이 없어지거나 혹은 다른 기관과 통합함으로 해서 자신의 직책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직책이 없어지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특별 해고라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정부 기관에 근무한 그런 관료들을 해고한 사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동독의 비밀경찰에 해당되는 슈타지에 근무했던 95,000명의 관료가 해고가 되었고요. 또 동독군에서 직업적으로 근무했던 직업 군인들이 대다수 해고가 되었는데요. 직업 군인들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동독군이 통일된 독일군에 편입이 될 때에는 일제급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급 강등을 감수하고라도 잔류한 인원이 11,00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서독의 관료로 잔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고위직 관료의 경우에는 4년간에 걸친 심사를 했고요. 단순적인 경우에는 1년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재임용 기간 동안 별다른 과거에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경우에는 통일 정부의 직업 공무원으로 재충원이 되었습니다.

총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상 사법 처리는 서독 주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이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 주민이 피해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법 처리가 지지부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통일 후유증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던 동독 주민들이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직후에는 동독의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통일 특수로 인해서 동독에서는 많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약 통일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동독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독 주민들이 구동독 체제에 대한 향수를 가지게 되고 동독 권력 엘리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게 되면서 총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나오게 되었고요. 1995년, 그러니까 통일되고 5년 만에 동독 주민의 54%가 총사면에 찬성을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통일되고 나서 5년 만에 동독 주민들이 이제 과거 청산은 종결하자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죠. 서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동독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동독 주민이 피해자고, 피해자가 사면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독의 입장에서는 총사면에 대해서 함께 지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경사이고 어느 나라이든 국가적인 경사를 맞이하게 되면 대사면을 하는 것이 하나의 명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총사면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법 처리 통계 숫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법부에서는 소극적으로 처벌함으로 해서 대다수가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 처분을 받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 청산 방식은 진상 규명입니다. 즉, 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널리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바로 진상 규명 처리 방식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 의회가 진상 규명을 주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진상 규명 위원회를 연방 의회에 마련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방 의회가 만들 수 있는 조사 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 조사, 다른 하나는 진상 조사 위원회인데요. 이 두 위원회의 차이는 국정 조사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조사 위원은 강제적으로 증인을 출두시킬 수가 있는 반면에 진상 조사 위원회는 그러한 강제 출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과거사에 관련된 진상 조사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이 위원회의 구성원을 서독 출신과 동독 출신 의원을 절반씩 충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동독 출신이 다수를 점하는 그런 진상 조사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 위원회는 공청회라든지 증언이라든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독의 권력 엘리트들이 공청회에 참석을 하고 많은 증언을 했고요. 다수의 학자들, 그리고 시민 단체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과거 청산에 관한 진상 조사 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1차 진상 조사 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동독의 공산 독재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동독 의원으로부터, 그리고 동독 주민들로 인해서 과연 동독의 잘못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당시 공산 독재에 저항했던 용감한 시민, 그리고 반체제 인사에 대한 진상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2차 진상 조사 위원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1995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진행이 되었고요. 이 두 차례의 진상 조사 결과 진상 조사에 관한 백서가 출판되었습니다. 비록 진상 조사 위원회는 1998년도에 끝이 나고요,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후속 사업으로서 앞으로 차세대들에게 과거 동독 독재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동독 독재 청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학술 연구라든지, 그리고 박물관, 전시회, 피해자 치유, 그리고 독재에 대한 시민 교육 등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간 연방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예산 지원이 76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바로 동독 공산당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서 충당해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인권 침해로 인해서 부당한 재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을 취소하고 복권을 시켜 줬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을 했는데요. 부당하게 수감이 되었을 경우에 1개월당 약 300유로에 달하는 금전을 제공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정치범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연금 수급자 자격은 6개월 이상 수감을 한 사람들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월 300유로를 종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극복 과제

1-6 한반도 통일 후 과거청산 방안

독일 통일 이후 과거 청산의 논쟁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한반도에서 통일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과거 청산을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청산과 관련한 유사한 개념이 ‘전환기 정의’라는 것입니다. 전환기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과거 정권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즉,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체제가 바뀐 정권이 그 이전 체제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전환기 정의의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독립했을 때 과거 식민지에 부합한 그런 세력에 대한 단죄가 있고요. 민주화 이후에 과거 독재 체제를 지지했던 권력 엘리트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요. 통일이 되었을 때 독일의 사례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구 공산 정권에서 이루어진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 그리고 민주화, 통일 등이 체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고, 체제 전환 이후에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우리가 전환기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거 청산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수록 체제 전환 이후에 이루어야 될 화해, 그리고 통합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청산을 성공적으로 할수록 체제 전환 이후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법 처리를 당하게 되는 구 권력 엘리트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전환기 정의에 대한 경험적 결과가 이루어졌는데요.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약 40년에 걸쳐서 124개 국가에서 과거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은 체제 전환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기간입니다.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 그리고 민주화가 된 국가가 다수인데요. 1970년대에는 남유럽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 여파로 1970년,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남미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1980년대 중후반에 아시아 지역의 한국, 대만, 필리핀 지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1990년대에 동유럽과 소련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민주화의 물결은 대규모의 체제 전환을 가져왔고, 그 결과 체제 전환 이후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의해서 사법 처리 등 많은 과거 청산 방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유사하게 많은 국가들이 사법 처리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즉, 사법 처리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고, 그리고 사법 처리를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새로운 체제 안정에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4개국에서 가장 많이 실행한 과거 청산의 방식은 사법 처리와 총사면입니다. 이 두 가지 처리 방식은 서로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아주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즉, 초기에는 사법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요구를 일견 수용하지만 결국은 낮은 실행 가능성으로 인해서 총사면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초기에는 사법 처리, 후기에는 총사면이라는 조합이 가장 바람직하고 보편적인 방식인 것이죠. 여기에 필요하다면 배상과 진상 규명을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기본적으로는 사법 처리와 총사면을 하고 나라에 따라서 여기에 배상을 추가하거나 혹은 진상 규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과거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어떠한 과거 청산 모델이 타당할까요? 아마 사법 처리는 독일의 사례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유일 지배 체제로서 권력 엘리트는 최고 권력자에게 절대복종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임의에 의해서 인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전체주의적인 체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 처리를 하게 되면 다수의 권력 엘리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통합 지향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를 바탕으로 하는 모델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가능하다면, 즉 북한 주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한다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과거 청산이 타당해 보입니다. 즉, 배상, 그리고 진상 규명을 통한 과거 청산이 가장 통합 지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 청산은 어떤 방식으로 통일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일 남북한 간에 신속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 사법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사면을 하는 모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반면에 남북한의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서로 간의 협상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사법 처리보다는 다소 낮은 처벌에 해당이 되는 진상 규명 모델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독일과 달리 1,000년 이상 통일 국가를 유지하였고 현재 분단의 역사는 지극히 짧은 70년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000년 이상 분단국가였습니다. 독일이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룩한 것은 1871년 비스마르크 때였습니다. 그 이후 독일은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일되었습니다. 독일에게는 분단이 자연스럽고 통일이 예외적인 현상이라면 한국의 경우에는 통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분단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반도의 분단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한반도의 분단은 무엇보다도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이 양국이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 냉전의 시작으로 인해서 두 개의 코리아가 한반도에 생겨났습니다. 즉, 한반도의 분단은 외국의 탓도 아니고 내부의 탓도 아니고 둘 다의 잘못에 의해서 한반도의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반도의 분단이 더욱더 고착화된 것은 바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한국민의 대다수는 조만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약 80%는 통일에 대한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 열망은 세대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이 든 세대의 경우에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 이후 과거 청산은 불가피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이후 엄격한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경우에도 독일과 유사한 그런 과거 청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경우 통일 이후 통합 지향적인 과거 청산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ctur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allenges to Overcome

1-1

The beginning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 am Ko Sangtu from Yonsei University who will be giving a lecture today on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hallenges to overcome.

Today, we will look at the history and cause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 the Korean people today view unification, and what to do with the past after unification.

Speaking of learning goals, we will look at the cause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eople's perception of unific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cases of past liquidation after German reunification.

Let me tell you about the origin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 is a homogeneous nation, but it was made up of several countries. Then, the first time the Korean people achieved a unified nation was in 668, when Silla unified the three kingdoms. From then until 1910, the Korean people maintained a unified nation. In this sense, the Korean people have maintained a unified nation for more than 1,000 years.

However, it became a Japanese colony in 1910, and in 1945, after liberation from the colonizat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divided and occupied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 was divided into two. From this point of view, the Korean people have had a unified nation for more than 1,000 years, but the history of division is only 70 years.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division is an exceptional phenomen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nification is a more natural phenomenon. Let me tell you about the reasons.

There are probably many reasons fo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we can point out the four most important causes. First,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divided and occupie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the Cold War began. The cold war meant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entered into hostile relations with each other. Then, two independent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owever, the separation into these two Koreas was not the end, and the two governments even engaged in armed conflict through the Korean War.

First, let me tell you about the division and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South Korea was occupied by the US military, and US military Government began in South Korea. The US military tried to introduce an American-style liberal democracy system in South Korea. They actually tried to hold free elec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supervision of UN, but due to opposition from North Korea, free elections were not able to take place in North Korea. And as a result, free elections were held only in South Korea under the supervision of UN.

As a result, in August 1948, a single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In South Korea, Syngman Rhee was elected as a president. President Syngman Rhee obtained his PhD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e was also an independence fighter with a very anti-communist ideology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By the way, President Syngman Rhee carried out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such ways as independence through diplomacy utilizing United States for independence. In contrast, North Korea was occupied by the Soviet Union and intend to introduce the Soviet system.

As I said earlier, North Korea opposed holding free elections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under UN supervision.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since South Korea had a larger population than North Korea, they judged that the result of the election would be disadvantageous to North Korea. For this reason, they opposed the visit of UN observers. Eventually after free election was held first in South Korea and a single government was established, North Korea also established a single government soon after. In the case of North Korea, Kim Il-sung came into power. Kim Il-Sung had a record in anti-Japanese guerrilla struggle in Manchuria as par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colonial era. He then fled to the Soviet Union around 1940 to avoid the subjugation of Japan, served as a captain in the Soviet Army, and returned to North Korea with the Soviet Army. So, from the Soviet point of view, he was the right person to introduce the Soviet system to North Korea.

Speaking about the origins of the Cold War, the occupation of the two Koreas by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did not actually aim at division, but was part of a policy to occupy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administrative convenience. In other words, their original purpose was to disarm the Japanese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ke Korea independent from Japan. However, contrary to these initial goals, the two Koreas eventually became divided. This was due to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in which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eventually entered into hostile relations with each other.

For this reason,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origins of the Cold War. The Cold War was caused by two factors. The first was the expansionary policy of the Soviet Union, and the second was the US policy toward the Soviet Union to contain the expanding Soviet Union. As a matter of fact, it was after World War II that the Soviet Union began to expand. Prior to that, the Soviet Union had not pursued an expansive policy. When the socialist revolution broke out in Russia in 1917, the surrounding countries, especially the capitalist countries of Europe, were tense. Because they feared that the socialist revolution in Russia would spread to Europe. Contrary to these concerns, however, Russia has taken a fairly passive policy of socialism in one country, dedicated to building socialism within Russia. Therefore, from the standpoint of Europe or the United States there was no need to keep Russia in check.

However, with the end of World War II, the Soviet Union began to pursue an expansionary policy in earnest. Half of Europe became socialist by defeating Nazi Germany and implementing the Soviet system to Eastern Europe occupied by the Soviet Union. And at the time, the Soviet model was experiencing high economic growth and striving for relatively social equality. It can be seen as the situation where the United States is exerting containment on China's rapid growth and social equality, similar to the US containment of the Soviet Union's rise and expansion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has taken a policy of containment in this regard.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Truman Doctrine announced by President Truman in 1947. President Truman thought that in order to prevent the expansion of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had to help economically and militarily in Western Europe, which was destroyed by World War II at the time.

As a result, he pursues two ideas. The first idea is the Marshall Plan. Through the Marshall Plan, the United States helps rebuild the post-war economies of Western Europe. For this, the United States provided large-scale financial support to Western Europe. Militarily, through the creation of NATO, Europea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form a military alliance to jointly defend against the military threat of the former Soviet Union.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allenges to Overcome

1-2

The Korean War and the fixation of division

After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situation became permanent due to the Korean War. First, let me tell you about the background of the Korean War. After two independent governments were formed in the two Koreas, North Korea planned to reunify the peninsula by force. And North Korea requested support for the unification war from the Soviet Union, which was the suzerain at the time. However, the Soviets initially did not approve of North Korea's war plans. The reason was that they did not have confidence that North Korea's reunification war would succeed.

However, in 1950, Stalin finally approved the North Korea's war plan. The reason is that in 1949, the year before, significant international political changes had occurred in Northeast Asia. First, the mainland China became communized. As a result of a long civil war against Chiang Kai-shek, Mao Zedong won the war in China, eventually expelled Chiang Kai-shek to Taiwan and communized the entire Chinese continent. Regarding this phenomenon, Stalin of the Soviet Union thought that a background was prepared that China could help if North Korea invaded the South.

Another factor is the fact that the Soviet Union has succeeded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s a matter of fact, what the Soviet Union was afraid of was the US nuclear weapons. However, in 1949 as the Soviet Union also developed nuclear weapons, they became confident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be able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Soviet Union or China. In this way, as the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 changed greatly in 1949, Stalin finally approved Kim Il-sung's plan to invade the South. As a result,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Korean War was influenced b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but conversely, the Korean War also had a great impact on international politics.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it was called the "Cold War" in the expectation that there would be no actual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t the time, but it was no longer a Cold War, but a real war. So, the Korean War is evaluated as the 'first hot war in the Cold War era'.

And the Korean War did not simply affect Northeast Asia, but also had a great impact on Europe, where the West and the Soviet Union were confronting at the time, enabling Germany to rearm and allow Germany to join NATO. At that time, the Second World War had just ended and there were still security concerns about Germany within Europe. In fact,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Germany caused two wars only within about 20 years. For this reason, European countries had the idea that Germany was a potential enemy that could cause a third world war. Despite this, Germany was invited to join their military alliance, due to the realization of the imminent military threat posed by the Korean War.

As for the Soviet and Chinese aid to North Korea, the methods of Soviet and Chinese assistance were slightly different. In the case of the Soviet Union, they mainly provided material support. They supported war materiel and military equipment. In particular, it supported large-scale tank forces that had a decisive impact on the Korean War. And it played a role in training the North Korean army by sending a military advisory group. The Soviet Union supported North Korea because they started an expansive foreign policy. As mentioned earlier, with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the Soviet Union no longer contented itself with passively constructing socialism within its own borders, but began to export this socialist model to the rest of the world.

As part of that, Europe, and Northeast Asia, it used an expansive policy in Northeast Asia, especially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is, the Soviet Union tried to expand its influence in Northeast Asia, and especially needed the Advanced Base Force. as you well know, Russia always wants an ice-free port. It has always been looking for unfreezing seas and ice-free port. Expanding its influence in North Korea and utilizing North Korean military bases would give the Soviet Union a far more strategic advantage.

In contrast, Chinese aid was not provided by military equipment, but by the direct dispatch of troops. So, China dispatched a military unit made up of ethnic Koreans in China to North Korea. The reason China supported North Korea was because of the unfinished civil war, that is, in the situation where Chiang Kai-shek retreated to Taiwan, China would have to go to war with Taiwan someday and ultimately unify Taiwan. To this end, China helped North Korea in the calculation that it would desperately need Soviet aid in the future.

The Korean War went on for about three years. It started in June 1950 and an armistice was signed in July 1953. It was a three-year war, but the actual duration of the war was one year. After two years of armistice negotiations, an armistice was finally signed after three years of war.

To briefly talk about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North Korea occupied Seoul three days after the invasion and occupied almost all of South Korea within a month. However, as the United States and other UN forces participated in the war, on the contrary, almost the entirety of North Korea was occupied by the US and UN forces, and eventually, with the help of China, the front line was stalemate near the original division line, the 38th parallel north.

So in the end, the DMZ, or Demilitarized Zone, was establish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This demilitarized zone was established almost at the same point as the 38th parallel north. The Demilitarized Zone, as the name suggests, is a zone. This demilitarized zone is made up of two elements. One is what is call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is is 'line'. It is a sort of bord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2 km to the north and 2 km to the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 buffer zone with a total width of 4 km was established. This corresponds to the Demilitarized Zone (DMZ).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DMZ, the armistice agreement was finally signed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the armistice, a prisoner exchange took place between the two sides. Accordingly, the north sent a total of 13,000 prisoners to the south, and the South sent 83,000 prisoners to the North.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risoners exchanged. About 8,000 South Korean soldiers and about 5,000 UN soldiers were repatriated from the north to the south. Meanwhile, about 76,000 North Korean soldiers and about 7,000 Chinese soldiers were repatriated from the South to the North.

Speaking of the ripple effects of the war, above all, the entire country was destroyed, and of course many citizens suffered. Half of the industrial facilities were destroyed and two-thirds of the houses were destroyed. As a result, Korea fell into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right after the war. MacArthur, then commander of the UN forces, said, 'There is no hope for the Korean people.' It clearly expresses the situation at the time when the entire country was destroyed, including industrial facilities, housing, and infrastructure in Korea. And tens of millions of families were scattered from each other. And a significant number of families have been scattered to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have not been able to meet until now.

The deepening of the division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 politics of the two Koreas. In North Korea, the dictatorship of Kim Il-sung became more solid. In South Korea as well, it was an obstacle to democracy taking roo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bused anti-communist laws to politically suppress the opposition under the national pretext of anti-communism. And the ROK-US alliance was signed, and USFK troops are stationed in South Korea to this day.

Regarding the casualties of the Korean War, in the case of civilian casualties, there were about 600,000 civilians in North Korea and about 1 million in South Korea. Comparing the damage to the military forces, the number of deaths in North Korea was about 400,000, and in the case of South Korea, about 200,000, North Korea suffered about twice as many troops as South Korea. In the case of the Chinese army, 600,000 troops died in the Korean War. In other words, as many Chinese soldiers died on this land as the number of deaths of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soldiers combined. In comparison, US and UN forces seem to suffer relatively little damage. In the case of the US military, about 36,000 people died, and in the case of the UN forces, it is about 3,000.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allenges to Overcome

1-3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unification

Let's study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people on unification. First, let me tell you whether Koreans want unification. About 50% to 60% of the Korean population invariably aspires to unification. The proportion of these unifying aspirations does not change much. And about 20% to 30% of the population are relatively in favor of unification, although not very active about it. There are people who do not want unification, and the percentage is about 20%. However, this percentage is gradually in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who actively or passively wants unification is nearly 90%.

If we look at the people who want unification by generation, in the past, that is, as of 2008, there was no big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in their 20s, 30s, 40s, and 50s. 79% of those in their 20s expressed their desire for unification with 83% of those in their 50s.

However, as of 2018, which is more recent, if we look at it, those in their 20s have decreased to 62%, while those in their 50s are still showing an unchanged figure at 83%. And those in their 30s and 40s are a generation that gradually feels the need for unific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unlike the past, today there is a generational difference in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The reason is probably that the older generation has emotional support for unification, whereas the younger generation views unification more rationally, and I think it may be related to the cost of unification to some extent.

There are various answers to the survey on how much they are willing to bear for unification costs. There are 21% of the people who do not want to bear the burden. And less than 10,000 won (about 8 US dollars) 24%, 20,000 won to 50,000 won 22%, 60,000 won to 100,000 won 16%, 110,000 won to 200,000 won 5.6%, And more than 210,000 won is 9.9%. In the case of West Germany, the cost of unification per person was about 100,000 won in Korean currency. From that point of view, the cost of unification will be realistic only if the people agree to pay more than 100,000 won. However, only about 15% of the people said they would pay more than 100,000 won. In that respect, it can be seen that Koreans' willingness to bear the cost of unification is relatively low. In the case of Germany, the economic ga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as not that great. It is sai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economic level of about 1/5 to 1/6, but in the case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is gap is 50:1. This means that in order for the two Koreas to have similar levels of economic power after unification South Korea will have to pay at least 10 times more unification costs than West Germany. Then, in fact, in terms of a simple calculation, it is necessary to bear the cost of unification of 1 million won per person. I think this calculation may have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younger generation to gradually look at unification from a more rational perspective.

Why are Koreans in favor of unification? There may be many reasons, but the biggest reason is that we are one nation after all. In 2007, 50% of the people said that we should be unified because we are one nation. In other words, half of the people had a view of unity that one nation should have one country, but today, such a nationalistic view of unity is somewhat declining. In 2019, 34% of the people have the idea that unification is necessary because we are one nation. Meanwhile, other reason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2007, 19% of the people said that reunification was needed to eliminate the threa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oday it has increased to 32%. Since 34% of the people said that unification is necessary because we are one nation, and 32% said that unification is necessary for peace, it can be said that the ratio of nationalistic and pacifist views on unification has become almost the same.

The third most important reason is a more economic view of unification, which holds that the two Koreas, or the Korean Peninsula, can become a powerful country if unified. This view of unification is supported by about 18% of the people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past or now. Although the rest of the factors have relatively weak influence, about 10% of the people say that unification should be done for the sake of separated families.

What do Koreans think of the North? Looking at the perception of Koreans toward North Korea, the strongest view is that the two Koreas should cooperate. And these thoughts are growing. So, as of 2016, 43% of the people suppor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On the contrary,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who think that we should be wary of North Korea. About 21% of Koreans are wary of North Korea. More strongly than that, about 14% of the people think that North Korea is an enemy that threatens South Korea's security. Contrary to that, about 11% of the people think North Korea is a country that we need to help. And lastly, about 8% of the people see North Korea as a kind of rivalry. If those who view North Korea as rivalry are relatively neutral, about 55% of the people have a positive view of North Korea, that is, they see North Korea as a partner for cooperation or as an object to help. About 35% of the people who are afraid of North Korea or think of it as an enemy. From this point of view, a little over half of South Koreans have a positive view of North Korea. Slightly more than a third of South Koreans view North Korea hostilely. From that point of view, I can tell you that in the long run, the South Korean people have a cognitive structure that allows for a favorable and inclusive unification of North Korea.

However, in the short term, North Korea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s changing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people toward North Korea in a very negative way. So,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believe North Korea will give up its nuclear weapons, 56% of South Koreans think that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bout 21% of South Koreans believe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So, if we combine these two figures, about 77% of South Koreans have a relatively negative view of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giving up its nuclear weapons. We can see that this negative perception is a factor that further promotes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hinders unification. Therefore, in the issue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nification and the North's nuclear weapons are the two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allenges to Overcome

1-4

Arguments Over Liquidation of the Past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When the two Koreas reunify, the problem of liquidating the past will probably arise. In the case of South Korea, even today, 70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 there is a pro-Japanese argument. Also, whe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chieved, I believe that the issue of liquidating the past concern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will arise. Since Korea has not yet been reunified, we do not have an argument about the liquidation of the past. In the case of Germany, which was previously unified, let's first look at what kind of past liquidation debates there were.

In East Germany, there were many anti-human rights acts. Specifically, 250,000 people were illegally arrested during the 40 years of the communist system in former East Germany. And there were about 30,000 political prisoners, most of whom were brought in from East Germany by West Germany. In order to bring them, the West German government paid East Germany a ransom amounting to about 100 million Korean Won per person. And there are about 3 million East Germans who fled from East Germany and moved to West Germany. This 3 million migration figure was before the construction of the Berlin Wall in 1961. In other words, after the divis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n 1949 and the establishment of two governments, over a period of about 10 years, 3 million East Germans fled to West Germany. After the Berlin Wall was built in 1961, only about 1,000 people fled from East Germany to West Germany.

After German reunification, several past liquidations took place. Judicial treatment, dismissal, amnesty, reparation, and fact-finding are the methods of liquidation of the past in former East Germany. If we categorize these past liquidation methods, the past liquidation targeting the perpetrator is a punishment. So, judicial treatment, dismissal, and no punishment are pardons. Regarding the past liquidation for the victims, compensation that compensates materially is the way to deal with the past liquidation for the victims. And the way to deal with both perpetrators and victims is truth-finding. Among the methods of liquidation in the past, the most rigorous is judicial processing. A pardon is the minimal way to clear up the past.

First, let me explain the judicial process. In the case of East Germany, anti-communist civil society groups in East Germany demanded democratization before reunification, and the Communist Party system in East Germany collapsed. So, before reunification, anti-communist civil society groups in East Germany demanded punishment for the Communist Party's suppression of human rights. Soon after reunification, the West German government set up a special investigation department to deal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this judicial treatment has caused several controversies. First and foremost, non-retroactivity. This is the principle that new laws cannot be made to apply past sins. In other words,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law now and ask for past sins. In the case of East Germany, in order to punish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red in the past East Germany, there must be a law that can punish at that time. However, since there was no such positive law in the dictatorship system, it is difficult to punish by creating a new law after unification. Also, even if there was a punishment regulation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st Germany, it is difficult to punish with the law because the regulation is ambiguous.

The second controversial issue is the indivisibility of criminal activity. East Germany's regime was a totalitarian regime, consisting of one massive oppressive structure in which the leadership gave orders in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ate agencies carried out the leadership's orders, making it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who was at fault for what. In general, in order to punish criminals,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specify the severity of the crime for each individual, but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to punish individuals because the criminal act is inseparable. Nonetheless, there are laws that can punish criminals who commit crimes collectively. It is called Participation in a Criminal Group, but in the case of the country, it is difficult to apply this law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 criminal group.

A third controversial issue is the statute of limitations. Since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st Germany were mainly committed in the 1950s, in the early days of a single government, there were problems that had already pass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the 1990s after reunification.

There was much opposition to the East German judicial process. There was opposition in East Germany as well as in West Germany. In the case of East Germany, the old power elite protested, claiming that this judicial process was a political trial. In other words, the logic is that unification is a political event, and handling it through judicial means is an impure purpose to eliminate the enemies of the system. Another logic is that it is a retaliation trial. It is a criticism that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competed for different systems, but in the end, the country that won the system competition punishes the defeated country by law. And there is also the logic of double punishment. The logic is that East Germany has already been judged by history as its system collapsed and was absorbed and integrated into West Germany, but it is being judged judicially again. This is the logic that the elites of the former East Germany insist on.

Even in West Germany, there were voices against the judicial process. In particular,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West Germany insists that West Germany has no right to punish East Germany. The reason is that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West Germany actively pursue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East Germany through the East Policy, and in that sense officially recognized East Germany and exchanged and cooperated with it. Therefore, they argue, it is undesirable to condemn former cooperative partners after unification.

In East Germany, the Nazi dictatorship is often compared with the East German dictatorship. This is because, just as the liquidation of pro-Japanese factions was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task in Korea, liquidation of the Nazi dictatorship was the most important task in Germany. Therefore, after the liquidation of the Nazi dictatorship, the task of liquidating the dictatorship of East Germany was given as it was now unified, and there were many discussions comparing whether the Nazi dictatorship and the dictatorship of East Germany were similar or different. As a result, they concluded that the Nazi dictatorship and the East German dictatorship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at conclusion, the treatment method for each was also different. The Nazi dictatorship was severely liquidated, while the East German dictatorship was moderately liquidated.

In the case of the Nazi dictatorship, the Germans did not liquidate it themselves, but the victoriou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liquidated the Nazi dictatorship with their will. So, the victorious countries opened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 to punish the past Nazi dictatorship. At this time, the universal human rights law was applied, not the positive law. In other words, even if there was no punishment clause in the Nazi dictatorship at the time, it is the application of the universal human rights law that if it is judged to be an unforgivable crime from the universal point of view of mankind, it can be punished at any time even after the crime. Following this precedent, even after the Nuremberg Trials, arrests and trials of Nazi dictators continued. The West German judiciary followed the precedent of these military trials and continued to follow up punishment.

In contrast, in the case of East Germany, the Nazi dictatorship and the East German dictatorship were different. Because Nazi crimes killed 6 million Jews, World War II killed 20 million, Since this is a scale of damage that is incomparable to that of the East German dictatorship, it is not desirable to put the Nazi dictatorship on the same line as the East German dictatorship. Therefore, while it is reasonable to punish Nazi crimes in terms of natural law and universal human rights law, in the case of East German crimes, positive law should be applied, and it is such a position that the crimes at that time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s that existed during the past East German dictatorship system.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allenges to Overcome

1-5

Realities of past liquidation after German reunification

I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the past liquidation reality after German reunification. As I said before, Germany has settled the past in various ways. To tell you about those methods in turn, first of all, in the case of judicial processing, after unification, many citizens reporte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number of complaints filed reached about 4.5 million. Not all of these complaints have been investigated. Of these, about 75,000 cases have been culled and investigated. 75,000 cases were investigated, and among them, certain cases were brought to trial. When a case is put to trial, we call it a prosecution. The number of prosecutions is only about 1,000. In other words, 75,000 cases were investigated but only 1,000 cases were brought to trial. And out of these 1,000 cases, 753 cases were convicted which is about 69%. Among the remaining about 31% were also acquittals in the pure sense. In other cases, there have been quite a few cases where a conviction could not be established because the accused was too old or died during the trial. In this way, after unification, the number of complaints related to the liquidation of the past reached 4.5 million, of which only 753 cases were finally judicially punished. From a realistic standpoint, how much of a judicial waste is this, a waste of time and money? Therefore, judicial processing is the strictest method the victim wants. Although judicial treatment is essential to establish social justice, the case of Germany shows that it is not so easy to implement judicial treatment in reality and does not produce reasonable results.

The second method of liquidation in the past was to dismiss the power elite who worked for East Germany's intelligence services. East Germany had a huge bureaucracy. A communist state has a system controlled and administered by the state. For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a planned economy requires a lot of bureaucrats. Also, such bureaucrats are mainly recruited from Communist Party members. In the case of East Germany, there were about 2.3 million Communist Party members. Since the population of East Germany was about 20 million, more than 10% of the population were party members. And about 2 million of them were bureaucrats. So, if most of the bureaucrats are party members, in the end, most of the communists worked as state bureaucrats. Comparing it to West Germany, we can see how many bureaucrats there were in East Germany. In West Germany, bureaucrats accounted for only around 7% of the population, whereas in East Germany they accounted for 12.5%. So in terms of population, East Germany had about twice as many bureaucrats as West Germany. After reunification, the West German government dismissed a significant number of officials in order to reduce the size of East German bureaucrats and to liquidate the past.

To this end, after unification, the West German government introduced a career civil service system. In the case of East Germany, it was not a career civil service system, but a system of recruiting bureaucrats from Communist Party members, and after unification, a career civil servant system was introduced. As a result, many East German officials were dismissed, and there were two methods of dismissal. One was a general layoff and the other was a special layoff. General dismissal was possible when a bureaucrat lacked professionalism, or when his/her position disappeared due to the disappearance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or integration with another institution. That is a general dismissal. After 6 months from the end of the bureaucratic position, the automatic dismissal was processed.

Special dismissal is the case of dismissal of officials who worked for government agencies that are likely to violate human rights. In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95,000 bureaucrats who worked in the Stasi, the East German secret police, were fired. In addition, most of the professional soldiers who worked professionally in the East German Army were fired. In the case of professional soldiers, they were fired through investigations into professionalism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when East German soldiers were incorporated into the unified German army, they were demoted to one rank. So even after accepting such a rank demotion, there were about 11,000 soldiers who remained.

When East German officials wanted to remain, they had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reappointment. In the case of high-ranking officials, the review took four years. In the case of simple civil servants, they went through a screening process for one year, and if they passed without any problems during this period, they were reappointed as career civil servants of the unification government.

As for the general amnesty, in fact, judicial treatment was requested not by West Germans, but by East Germans. Because East Germans were the victims. However, as the judicial process was sluggish and the aftereffects of reunification arose, East German residents who strongly demanded judicial processing requested an amnesty. Because right after reunification, East Germany's economic situation was good. Due to the special effects of reunification, a lot of economic growth was achieved in East Germany, but about five years after unification, mass unemployment occurred and the standard of living in East Germany began to decline. Correspondingly, as many East German residents had nostalgia for the East German system and sympathy for the East German power elite, voices for a general amnesty gradually came out. In 1995, that is, 5 years after reunification, 54% of East German residents showed a position in favor of a total amnesty. In other words, 5 years after reunification, East German residents now have an attitude to end the liquidation of the past. From the standpoint of West Germany, there is no choice but to respect the opinions of East German residents. Because the residents of East Germany are the victims, and the victims are claiming amnesty, West Germany has become a position to support the total amnesty together.

In fact, unification is a national congratulation, and when any country faces a national congratulation, it is bound to grant a general amnesty in the name of it. Therefore, at the point where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unification, there is an unavoidable aspect of a great amnesty at the national level. In addition, as I said in the judicial processing statistics, the judiciary has already been passively punishing, and the majority of the accused have not been prosecuted or acquitted, so it can be seen that in practice, pardons have already been made.

The third way to clear up the past is the truth-finding. In other words, it is to identify the specific situ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ublicize them. Through this, preventing such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recurring is the method of truth-finding. In the case of Germany, the German Parliament took the lead in finding out the truth.

So, the truth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the German Parliament. There are actually two commissions of inquiry created by the German Parliament. One is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and the other is the truth commiss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ommissions is that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has a kind of quasi-judicial authority. So, while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can force witnesses to appear, the truth commission does not have such compulsory attendance but can request attendance. Originally, when the truth commission related to the past was created, the plan was to fill half of the members of this commission with members from West Germany and half from East Germany, but in reality, the truth commission was formed with East Germans in the majority. The commission held public hearings to hear testimony and the opinions of many experts. So, the former East German power elite attended the public hearing and gave many testimonies. A number of scholars and experts from civic groups provided opinions.

The truth commission on liquidation in the past was held twice. The first truth commission, which ran from 1992 to 1994, mostly investigated the communist dictatorship in East Germany.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East German members and residents suggested that it was necessary not only to investigate the wrongdoings of East Germany, but also to investigate the brave citizens and dissidents who resisted the communist dictatorship at the time, and the second commission was established. This commission lasted for three years, from 1995 to 1998. As a result of these two investigations, a report on the fact-finding was released. Although the truth commission ended in 1998 and the truth was established, it was not the end, but as a follow-up project, to inform and enlighten the next generation about the East German dictatorship "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Foundation for the Reappraisal of the SED Dictatorship) was created. The foundation serves academic research, museums, exhibitions, victim healing, and civic education on dictatorship. It receives \$7.6 million in federal aid annually and has a fund of approximately \$120 million. This fund was created from the assets of The Socialist Unity Party of Germany.

Compensation was also made to the victims. If the victim received an unfair trial judgment due to human rights violations, the judgment was canceled, reinstated, and financial compensation was provided. In case of unfair imprisonment, compensation of about 300 euros per month was provided. In addition, pensions were provided for political prisoners who had difficulties making a living. This pensioner qualification was for those who had been imprisoned for more than 6 months and had a hard time making ends meet, and would receive 300 euros per month for lif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allenges to Overcome

1-6

Plans for Liquidation of the Past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 talked about the controversy and the actual situation of liquidation in the past after German unification. Then, how should the past be settled after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 think we need to discuss it together.

A similar concept commonly associated with past liquidations is called 'transitional justice'. A concept called transitional justice is the act of punishing crimes against past regimes after regime transition. In other words, in order to establish social justice, punish past crimes the regime of the new system punishes the past crimes of the previous system.

There can be several triggers for transitional justice. After independence from the colonies, there are punishments for those who have adhered to the occupation forces in the past. After democratization, there are cases of punishing the power elite who supported the dictatorship system in the past. When unification came, as shown through the case of Germany, there are punishment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under the former communist regime. Like these, independence,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lead to systemic transition, and punishment for past crimes after systemic transition can be referred to as transitional justice.

However, there is a dilemma in this liquidation of the past. This is because the stricter punishment for past crimes becomes an obstacle to the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that should be achieved after system transition. In other words, the more successful liquidation of the past is, the more likely it will be to fail after system transition. Because strict punishment means judicial redness after all. This is because it is highly likely to cause a backlash from the elites of the old power who will be subject to judicial treatment.

Therefore, many empirical results on the definition of transition have been made through research. From 1970 to 2008, past clearings took place in 124 countries over a period of about 40 years. This period is the period in which the most system transitions have been made.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have become independent from colonialism and have become democratized. In the 1970s, democratization took place in Southern Europe, and as a result, democratization took place in South America from the 1970s to the early 1980s. And in the mid-to-late 1980s, democratization took place in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in Asia. Finally, in the 1990s, democratization took place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This wave of democratization brought about a large-scale systemic change, and as a result, after the systemic transition, by voices demanding the liquidation of the past, the past was settled in many ways, including judicial proceedings.

However, similar to Germany, many countries have experienced limitations in their judicial process. In other words, the feasibility of judicial processing was low, and the stricter the judicial processing, the more it posed a threat to the stability of the new system. Therefore, the most common method of clearing the past in these 124 countries is a combination of judicial treatment and total amnesty. These two approaches seem to contradict each other, but they are an ideal combination. In other words, it is a method of accommodating the victim's request by initially judicial processing, but eventually giving a general amnesty due to its low feasibility. In other words, the combination of judicial treatment in the early stage and total amnesty in the later stage is the most desirable and universal method. Compensation and truth-finding were supplemented if necessary. So, in many countries, the past has been settled by basically judicial processing and total amnesty, and depending on the country, compensation or truth-finding is added to it.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at model for liquidation of the past will be appropriate? The judicial process is probably more difficult than the German case. Because North Korea is a monolithic ruling system, it is such a system in which the power elite obeys the highest power. So, it is a totalitarian system tha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rest of the elites, except for the highest power, arbitrarily violated human rights. In this situation, if judicial processing is carried out, the backlash of the majority of the power elite is inevitable. Therefore, I think that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 integration-oriented model is needed. This model is based on the perpetrator's reflection and the victim's forgiveness. Furthermore, if possible, that is, if the North Korean people agree and support it, it seems reasonable to settle the past centered on the victim rather than the perpetrator. In other words, I believe that the liquidation of the past through reparation and fact-finding is the most integration-oriented model.

However, the liquidation of the past may be somewhat different depending on how the two Koreas are unified. If rapid reunification is achieved between the two Koreas, judicial action will be inevitable. In this case, a model of judicial treatment at the beginning and pardon afterwards seems desirable. On the other hand, if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gradual, it will be practically difficult to deal with the judicial process because the unification is achiev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a fact-finding model that is less punishable than judicial treatment seems most desirable.

Let me recap what you learned today.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y, it has maintained a unified state for more than 1,000 years, and the current history of division is only 70 years. Germany has been a divided country for over 1,000 years. It was in 1871 by Otto von Bismarck that the first Unification of Germany was achieved. Since then, Germany has been divided and reunited. For Germany, division is natural and unification is an exceptional phenomenon, whereas for Korea, unification was a natural phenomenon, but the current division is an exceptional phenomenon.

But when and how did this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me abou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egan, above all, with the division and occup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fter the division and occup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wo Koreas were created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in which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entered hostile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caused not only by foreign countries, but also by internal faults.

It was through the Korean War that this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ecame more fixed. Today, the majority of Koreans hold out hope that unification will happen sooner or later. Also, about 80% of Koreans aspire to unification.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in the degree of unification aspirations. In the case of the older generation, the desire for unification continues unchanged, while the younger generation's desire for unification is somewhat diminishing.

After reunification, liquidation of the past will be an inevitable issue. In the case of Germany, after reunification, it was unable to rigorously liquidate its past.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I guess that the past liquidation will be similar to Germany.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a integration-oriented model of clearing the past after unification is required.

We will end today's lecture here. Thank you.

讲义

韩半岛的分裂和克服课题

1-1 韩半岛分裂的开始

我是今天把韩半岛分裂和克服课题将讲授的延世大学高相斗。

今天要学习的学习内容是观察韩半岛分裂历史和原因，了解今天韩国国民如何看待统一。另外，统一后将了解如何清算过去。

说到学习目标，就能知道韩半岛分裂的原因。还可以了解关于统一的国民认识。而且就能理解德国统一以后过去清算的事例和韩半岛统一的启示。

首先介绍一下韩半岛分裂的开始。虽然韩国是一个民族但已经拥有很多的国家。后来最初韩民族拥有统一国家的是在新罗统一三国的668年。此后到1910年为止，韩民族拥有一个统一的国家从这个意义上讲，韩民族已经拥有了一千多年的统一国家。

但是1910年成为日本殖民地，

并在解放出殖民地来的1945年，美国和苏联分割占领了韩半岛，韩国出现了两个韩国。从这种观点看来，韩民族在1000年以上都拥有一个统一的国家，但分裂的历史只有70年。从这个角度看来，韩半岛的分裂是极其例外的现象，反而也可以说统一是更自然的现象。

那么,我来说一下韩半岛为什么分裂的原因。也许韩半岛分裂的原因有很多,但最重要的原因可以选四个。第一个是美国和苏联分割占领了韩半岛。接着开始冷战了。

冷战意味着美国和苏联进入了相互敌对的关系。随后,这个韩半岛成立了两个独立政府,即是韩国和朝鲜。但是,分裂为两个韩国并没有结束,两国政府甚至通过韩国战争展开了武装冲突。

首先,让告诉你们美国和苏联对韩半岛的分裂占领。韩国被美军占领了,所以在韩国开始美国军政,美军试图在韩国引进美国式的自由民主体制。实际上,在联合国的监督下要试图在南北韩都举行韩半岛的自由选举,但由于朝鲜的反对,朝鲜不能举行自由选举,结果,在联合国的监督下,只有韩国才能举行自由选举。

结果,1948年8月,韩国成立了单独政府。

在韩国当选了李承晚总统。李承晚总统在日本殖民统治时期在美国获得了博士学位。还有,他由于美国的影响是有着反共产主义思想的一位独立志士。但是,李承晚总统的独立运动方式是通过外交的独立和利用美国的独立,用那种方式开展了独立运动。相反,在朝鲜被苏联占领后,试图引进苏联式的苏维埃。

正如我早些时候所说，朝鲜反对在联合国监督下在朝半岛全境举行自由选举。人口来看，因为韩国的人口比朝鲜多，所以就判断了选举结果对朝鲜不利。因此，他们反对联合国观察员的访问，最终在韩国首先举行了自由选举并成立了单独政府。然后朝鲜也成立了单独政府。在朝鲜情况下，就掌权了金日成。金日成首相是在殖民治独立运动时期曾有过在满洲地区的抗日游击队斗争史。随后，1940年经，他为了躲避日本的征服，逃到了苏联，以苏军大尉身份担任，跟苏联军队一起进驻了朝鲜。所以，从苏联的角度来看，他是把苏联式的苏维埃体制引入在朝鲜合适的人才。

谈到冷战的起源，苏联和美国占领南北韩的是事实上，分裂不是初期目标，而是根据韩半岛的行政便利。这是为了占领的政策。

再说一遍，解除在韩半岛的日军武装，而且他们的目标是让韩国独立于日本。然而，与这些最初的目标相反，南北韩最终分裂了。这是终于开始建立从美国和苏联彼此敌对关系的冷战。

出于这个原因，暂时谈一下关于冷战的起源。冷战是由两个因素引起的。

第一是苏联的扩张政策，而且，美国牵制不断膨胀的苏联的大苏联政策，冷战开始了。事实上，苏联开始扩大的是第二次世界大战以后。在此之前，苏联没有采取扩张的政策。1917年在俄罗斯爆发社会主义革命时，周边国家，特别是欧洲资本主义国家都处于紧张状态。因为他们担心俄罗斯的社会主义革命会扩散到欧洲。然而，与这些担忧相反，苏联相当消极的，和采取了致力于在苏联内建设社会主义的一国社会主义政策。因此，从欧洲或美国的角度来看，没有必要牵制苏联。

但是随着结束第二次世界大战,苏联开始正式实行扩张政策。半个欧洲通过击败纳粹德国, 和将苏联体制移植到苏联占领的东欧地区等而成为社会主义国家。还有, 当时苏联模式正在经济高速增长而且还是比较具有社会平等性的。

就像今天中国的高速成长和美国牵制中国社会平等的情况是第二次世界大战后苏联的崛起和膨胀。而且可以看作是类似于美国的牵制。

在这个方面美国采取了遏制政策。最具代表性的例子是杜鲁门总统在1947年宣布的杜鲁门主义。杜鲁门总统认为, 为了防止苏联的扩张, 美国必须在经济和军事上帮助西欧, 而且认为应该在军事上给予帮助。

结果, 他追求两个想法。第一个想法是马歇尔计划。通过马歇尔计划, 美国帮助重建西欧战后经济。为此, 美国向西欧提供了大规模财政援助。在军事上, 把北约创立, 并欧洲国家和美国一起建设军事联盟, 共同防御了前苏联的军事威胁。

韩半岛的分裂和克服课题

1-2 韩国战争和分裂的固定化

南北韩分裂以后,让这种现象固定化的是韩国战争。首先,我来介绍一下韩国战争的背景。南北韩都组成两个独立政府以后,朝鲜制定用武力统一韩半岛的计划。并且北韩给当时宗主国的苏联要求支援统一战争。但是,苏联并不赞成朝鲜的战争计划。理由是他们没有自信朝鲜的统一战争会成功。

但1950年,斯大林终于批准了朝鲜的战争计划。原因是,前年即1949年,在东北亚地区发生了国际政治重大的变化。第一是中国大陆被成共产化了。毛泽东和蒋介石经过长期的内战结果,中国取得了胜利,最终把蒋介石驱逐到台湾,把整个大陆都共产化了。对于这种现象,苏联的斯大林认为,如果朝鲜入侵韩的话认为中国就可以提供帮助的背景。

另一个因素是苏联成功开发核武器的事实。事实上,苏联害怕的是美国的核武器。然而,在1949年随着苏联也开发核武器,美国对苏联和中国产生了不能使用核武器的这种自信。就这样,随着1949年国际战略环境发生巨大的变化,斯大林最终批准了金日成的南侵计划。结果韩国战争开始了。

这韩国战争虽然受到国际政治环境变化的影响,但相反韩国战争对国际政治也产生了很大的影响。当时开始冷战以后,人们期待美国和苏联之间不会发生战争,因此被称为"冷战",但现在不再是冷战,而就发生了真正的战争。因此,韩国战争被评价为"冷战时期的第一次热战"

而且，这样的韩国战争不仅单纯地影响到局限的东北亚地区，而且对当时西方和苏联对立的欧洲地区也产生了巨大影响，让德国可以重新武装并且允许德国加入北约。当时是第二次世界大战结束没几年的情况欧洲内仍然存在对德国的安全担忧。事实上，第一次世界大战和第二次世界大战，德国发动两次战争只有20年左右的差距。因此，欧洲国家认为德国有可能发动第三次战争的
本以为是潜在的敌国，却让这样的德国加入自己的军事同盟。是因为通过韩国战争就切身感受到了苏联的军事威胁到了什么程度。

看苏联和中国对朝鲜的援助来说，苏联和中国的援助方式少许不一样。就苏联而言，它主要提供物质支助。它支持战争物资和军事装备。特别是支援了对韩国战争具有决定影响的大规模坦克部队。另外，派遣了军事咨询团，在训练北韩军队方面发挥的作用。苏联之所以支持北韩，是因为北韩开始了扩张的外交政策。就像刚才说过的那样
冷战开始后苏联就变得消极不是满足于在本国内建设社会主义，而是开始向世界输出这样社会主义的模式。

作为其中的一环,在欧洲、东北亚、东北亚地区是在韩半岛采取了扩张的政策。由此，苏联扩大其在东北亚的影响力，尤其需要军事的前进基地部队。众所周知，苏联总是想要一个不冻港。它一直在寻找解冻的大海和解冻的港口。
如果扩大其在朝鲜的影响力并利用朝鲜的军事基地的话，就将给苏联带来更大的战略优势。

相反，中国的援助不是军事装备，而是直接提供派兵。因此，中国向北韩派遣了由在中国内特别组成朝鲜族的军事部队。中国之所以援助朝鲜，是因为尚未结束的内战，即蒋介石现在撤退到台湾的情况下。而且总有一天要和台湾开战，最终要统一台湾。考虑到未来迫切需要苏联的支援，所以帮助了朝鲜。

韩国战争持续了大约三年。1950年6月开始,1953年7月就签署了停战协定。

这是一场为期三年的战争,但实际的战争持续了一年。经过两年的停战谈判,终于三年的战争就签署了停战协定。

简单地说一下韩国战争的过程,朝鲜在侵略南韩三天后占领了首尔,一个月内几乎占领了韩国几乎所有的地区。但是,随着美国等联合国军参战,朝鲜全境再次被美军和联合国军占领最终在中国帮助下,在过去原来的分裂线的三八线附近领域,战线将当胶着。

因此,最终,通过停战协定就建立了DMZ,非武装地带。这个非武装地带的位置就成为与北纬38度线在几乎同一地点。非武装地带, Demilitarized Zone 是顾名思义的一个地区。这个非武装地带有为两个要素。一个是所谓的"军事分界线"。这是"线"。

这与韩国和朝鲜之间的一种警戒线没有什么区别。还有这个军事分界线北侧2公里、南侧2公里,建立了总宽度为4公里的缓冲地区。

这相当于非武装地带,就是DMZ。

随着指定DMZ,南北双方终于签署了停战协定。停战之后,双方进行了战俘交换。因此,北方共向南方输送了大概13 000名战俘,而南方则向北输送了大概83,000名战俘。交换的战俘人数有很大的差别。

从北方遣返南方的战俘是韩国军约8000名,

还有联合军约5000名左右。还有,从韩国遣返朝鲜的战俘,是朝鲜军约76000名,并是中国军约7000名。

谈到战争的扩散效应，首先，整个国家被摧毁，当然许多人们遭受了痛苦。工业设施被破坏一半，房屋被破坏三分之二。结果，韩国在战争之后立即沦落为世界上最贫穷的国家之一。当时联合国军司令官的麦克阿瑟这样聊天："韩国民族没有希望。"那就是韩国的产业设施、住宅、基础设施、国土被破坏的现象。如实地展现了出来。还有千万个亲人失散。还有相当多的家族分散到南北韩，至今未能见面。

分裂的深化对南北政治产生了很大的影响。

在朝鲜，金日成的独裁政权变得更加稳固。韩国也一样，民主主义成为了扎根的障碍因素。韩国政府以反共为国是之下，为了对反对派进行政治镇压就滥用反共法。并且韩美同盟签订了，到今驻韩美军一直驻扎在韩国。

对平民伤亡的情况认识的话，

在朝鲜平民伤亡情况的人数，大约有60万名，在韩国平民伤亡情况大约有100万名。对军兵力的被害相比的话，朝鲜的死亡人数约为40万人，还有韩国的情况约为20万人左右，

韩国比朝鲜遭受了约2倍左右的兵力损失。以中国军队为例，在韩国战争中死亡了有60万名的兵力。那个是终于中国士兵在这块土地上死亡的人数会相当于朝鲜军和韩国军死亡人数的总和。相比之下，相比受到美国和联合国部队的损害是相对较小。以美军的情况下，死亡者约有3.6万名，还以联合国军的情况约为3000名左右。

韩半岛的分裂和克服课题

1-3 对统一韩国国民的认识

今天咱们来研究一下韩国国民对统一的认识吧。首先告诉大家韩国人是否希望统一。韩国人中大约50%至60%的人口总是渴望统一。这些统一愿望的比例变化不大。还有尽管对统一并不十分积极, 比较对统一赞成的比率大约20%至30%左右。有些人不希望统一,其比率约为20%左右。但是,与过去相比,这一比率正在逐渐增加。从这个角度来看,把统一积极或消极希望的人口比率几乎接近90%。

这样看看愿意统一的国民各年龄段的, 过去, 以2008年为基准, 20多岁和30多岁, 40多岁, 50多岁, 不同年龄段的人感觉不到太大的差异。如果说20多岁人群占79%, 那么50多岁人群中83%渴望统一。

但是,以最近出现的2018年为基准看的话,20多岁人群减少到了62%。50多岁人群仍然以83%保持不变。而30~40多岁的一代是则逐渐感受到统一的必要性的世代。从这一点看来,和过去不一样,今天对统一的观点会发生各年龄段的区别。原因可能是老一代对统一有感情上的支持,但是年轻一代对统一的看法更合理,也许我想那个是在和统一费用有一些关联性的部分。

对于他们愿意承担多少统一费用的问卷调查,有多种答案。有21%的人不愿意承担这个负担。1万韩元一下的占24%, 2万到5万韩元的占22%, 6万到10万韩元的占16%, 11万到20万韩元的占5.6%, 还有超过21万韩元的占9.9%。在德国的话,大概花了人均统一费用为10万韩元左右。从那样观点看来,只有同意支付10万韩元以上,就能负担现实的统一费用。那么看的话,回答要支付10万韩元以上的人只有15%左右。从这一点来看,对统一费用负担的意志相对较低。以德国为例,东西德之间的经济差距并不那么大。虽然经济水平相差大概5分之1或6分之1左右,但韩国和朝鲜的情况是有经济相差50:1。统一以后,如果使南北韩做出相似经济实力的话,韩国是至少要承担比东西德高出10倍以上的统一费用的意思。那样看的话,实际上从单纯的计算来看,每个人都需要承担100万韩元的统一费用。也许这种计算对年轻一代来说会从更加合理和理性的角度出发想这会不会成为期待统一的契机呢。

韩国人为什么赞成统一?

虽然会有很多理由,但最大的原因是毕竟我们是一个民族。这种有由于我们是同一个国家所以需要统一想法的国民比率2007年就达成了50%也就是说,国民的一半带着认为一个国家应该拥有一个国家的那种统一观,但是今天这种民族主义的统一观点多少有所减弱着。2019年,34%的国民带了认为我们是一个民族,因此需要统一的想法。与此同时,其他原因也变得越来越重要。

为了消除韩半岛战争的威胁,为了实现韩半岛和平,需要统一的比率,2007年达成19%,如今已经上升到32%。34%的国民认为,因为是一个民族,所以要统一。因为和平的理由要统一的国民占32%,所以现在可以说对民族主义的统一观与和平主义的统一观几乎差不多。

第三个重要的理由是,如果实现统一,南北韩将成为韩半岛强大的国家。这种经济论性的统一观。这种想法无论是过去还是现在都没有太大的变化,约18%的国民支持这种统一观。

虽然其他因素的影响力比较弱但是其中为了离散家属应该实现统一的国民比率约有10%内外。

韩国人究竟会怎么看待朝鲜呢? 如果了解韩国国民的对朝认识的话。最强烈的想法是,南北韩应该合作。而且这种想法正在逐渐扩大。因此,以2016年为基准,43%的国民支持南北韩之间的合作。相反,也有不少人认为应该警惕朝鲜。大约21%的韩国人对朝鲜持戒心。更强烈的是,约14%的国民认为朝鲜是威胁韩国安全的敌人。与此相反,约11%的国民认为朝鲜是我们需要帮助的国家。最后,大约8%的人认为朝鲜是一种竞争关系。如果把竞争关系的这种比率视为比较中立的观点的话,

对剩下的朝鲜持肯定态度,换句话说,朝鲜是合作对象或者朝鲜视为援助对象的那样国民的比率大约55%。害怕朝鲜或认为朝鲜是敌人的国民比率大约35%左右。从这种观点来看,韩国国民对朝鲜持比较肯定的态度比例会超过一半。对朝鲜持敌对态度的国民是稍微超过三分之一的水平。

从那种观点来看的话从长远来看,韩国国民可以对朝鲜进行友好包容的统一可以说具有这样的认识结构。

但是,从短期来看,朝鲜正在开发核武器,这朝鲜开发核武器正在以非常消极的方式改变韩国国民对朝鲜的认识。因此,在他们是否相信朝鲜会放弃核武器的问题上,56%的韩国人认为朝鲜不会放弃核武器。约21%的韩国人认为朝鲜很有可能不会放弃核武器。所以,如果将这两个数据加在一起,大约77%的韩国国民对朝鲜放弃核武器的问题也就是说,相对持否定态度。

正是这种消极的认识促进了南北韩的分裂可以说这是妨碍统一的因素。所以在南北韩问题上统一和朝鲜核武器,可以说这两个因素是最重要的考虑因素。

韩半岛的分裂和克服课题

1-4 德国统一后过去清算的争论

如果南北韩统一的话，过去清算的问题可能会出现。就韩国而言，即使在从日本解放70年后的今天也有亲日论调。与此类似，韩半岛实现统一的话，关于朝鲜人权侵害问题的认为会出现清算过去的问题。因为南北韩之间还没有实现统一虽然对清算过去没有争议，但是已经实现统一的德国，先了解一下究竟有过怎样的清算争论。

在前东德，有许多反人权行为。具体来说，在前德国共产主义体制40年间，有25万人被非法逮捕。还有大约有30,000名政治犯，其中大多数是西德从东德政治犯带回来的。当时，西德政府带来政治犯的时候向东德支付了每人约大概1亿韩元的赎金。还有从东德逃到西德的东德人大约达成300万名。这一300万移民数字是在1961年建设柏林墙之前的数字。也就是说，在1949年东西德分裂和成立了两个政府后，在约10年的时间里，300万东德人逃到了西德。1961年建成柏林墙后，从东德逃到了西德的人只有1000多人。

德国统一以后，曾发生过几次过去清算。那是司法处理、解职、大赦、赔偿和事实调查，这些是前德国清算过去的方法。如果将这种清算过去的方式进行分类，那么以加害者为对象的清算过去，这相当于处罚。所以司法处理，免职，而且不处罚的方式就是赦免。对于受害者的过去清算，进行物质补偿是应对受害者的过去清算的方法。还有对付肇事者和受害者的办法就是查明真相。在以往的清算方法中，最严格的莫过于的是司法处理。赦免是清算过去的最起码的方法。

首先, 解释一下司法程序。前东德的情况是,在统一之前东德的反共市民社会团体在统一前要求民主化,东德的共产党体制崩溃。因此, 在统一之前, 东德的反共民间社会团体要求惩罚共产党镇压人权。统一后不久, 西德政府成立了一个特别调查部门, 处理侵犯人权事件。

然而, 这种司法待遇引起了许多争议。第一是刑事不溯既往的原则。

这是为了追究过去的罪责这是不能制定新法的原则。

所以现在制定法律, 追究过去的罪责。这是不可能的。就东德而言,为了惩罚过去东德发生的侵犯人权行为, 必须有当时可以处罚的法律。但是,由于独裁体制中没有这样的实证法,因此很难制定新的法律进行处罚。

另外,即使东德时节有侵犯人权行为的处罚规定,但由于规定模糊,很难用法律进行处罚。

第二个有争议的问题是犯罪活动的不可分割性。东德政权是极权主义政权, 如果侵犯人权, 领导层会下达命令因为国家机关是由执行领导层命令的一个巨大的压迫结构构成的很难明确区分谁做错了什么。我们一般要进行刑事处罚的话

每个人都要区分犯罪的错误部分因为这种犯罪行为是不可分割的,所以很难对每个人进行处罚。尽管如此, 仍有一些法律可以惩罚犯有集体罪行的罪犯。那个可以运用参与犯罪集团罪, 但国家的情况下很难将其视为犯罪集团,因此很难适用该法律。

第三个有争议的问题就是公诉时效问题。由于东德人权侵害主要发生在1950年代,即单一政府成立初期,因此统一以后1990年代已经过公诉时效的问题较多。

对东德的司法程序有很多反对意见。东德也有反对，西德也有反对。以东德为例,旧势力精英们主张反抗。此次司法程序就提出抗议政治审判。也就是说,统一是政治事件,通过司法手段进行处理是消除体制敌人的不纯目的那种伦理。另一个逻辑是,就是报复审判。虽然东德和西德为不同的制度展开了竞争,但最终有人批评说制度竞争获胜的国家将依法惩处战败国。还有双重惩罚的逻辑。其逻辑是,随着东德的体制崩溃,被西德吸收和合并,东德已经接受了历史的审判,但再次受到司法审判。这个逻辑是前东德精英们坚持反抗的逻辑。

西德也有反对司法处理的呼声。西德社会民主党特别强调西德无权惩罚东德。其理由是西德的社民党通过东方政策积极推进与东德的和解合作从这个角度出发 正式承认东德是交流合作的对象也就是说,主张在今天的统一以后,对过去的合作伙伴进行定罪是不可取的。

在东德, 纳粹独裁常常被比作东德独裁。因为,就像在韩国清算亲日派是最重要的历史课题一样,在德国, 清算纳粹独裁政权也是德国最重要的课题。因此,随着纳粹独裁的清算后再次迎来统一,随着面临清算东德独裁的课题, 纳粹独裁和东德独裁是否相似还是其他东西,进行了很多比较讨论。结果, 他们得出结论纳粹独裁和东德独裁是不一样的。根据该结论,各治疗方法也不同。纳粹独裁政权被严重清算, 而东德独裁政权被适度清算。

在纳粹独裁方面,德国人不是清算过去的德国人,而是传承国家的美国和苏联等带着意志清算纳粹独裁。因此, 战胜国开设了纽伦堡军事法庭, 以惩罚过去的纳粹独裁政权。当时, 适用的是普遍人权法, 而不是实在法。也就是说,即使当时纳粹独裁政权中没有处罚条款, 事后但今天从人类的普遍观点来看, 如果被判定为不可饶恕的犯罪,事后也可以随时进行处罚,这就是普遍人权法的适用。根据这一先例, 甚至在纽伦堡审判之后, 逮捕和审判纳粹独裁者的活动仍在继续。西德司法机构也遵循这些军事审判的先例, 并继续对惩罚采取后续行动。

相反, 在东德, 纳粹独裁和东德独裁是不同的。因为纳粹的罪行杀死了600万犹太人,所以第二次世界大战造成了2000万犹太人死亡,这样的规模是东德独裁政权无法比拟的那种被害规模,因此,将纳粹独裁政权与东德独裁政权划上同一线是不可取的。因此,对纳粹罪行进行处罚从自然法和普遍人权法来看是合理的,但对东德罪行应适用实证法,当时的犯罪应根据过去东德独裁体制中存在的法律进行处罚当时的犯罪。

韩半岛的分裂和克服课题

1-5 德国统一后清算历史实态

我向大家讲述德国统一后的清算现实。正如刚才所说,德国进行了多种方式的过去清算。那些方式按顺序讲的话

首先司法处理的时候统一以后,很多居民对侵犯人权行为进行了举报。此外,接受的投诉个案约达450万的告发。这些投诉并没有全部得到调查。从中筛选出并直接着手调查的件数为75000件左右。对75000件进行调查,然后将其移交审判,我们通常说在移交审判的时候起诉。

起诉件数只有1000件。也就是说,调查了75 000起案件,只有1 000起案件被交付审判。在这1000宗个案中,有753宗被定罪,约占69%。剩下的约31%也有单纯意义上的无罪判决。另外,在某些情况下,被告人是高龄,或者在审判中死亡因为这样的事情不能被判有罪的案件也很多。这样,统一以后有关过去清算和投诉件数达到了450万件,其中最终受到司法处罚的只有753件。从现实的角度来看,这是多少司法浪费,浪费时间和金钱?因此,司法处理是被害人希望得到的最严格的方法。虽然司法处理是建立社会正义的必要条件,但在现实中实施司法待遇并不那么容易。还有德国实例给我们知道没有带来合当的结果。

第二种过去清算的方法是解雇为东德情报部门工作的权力精英。东德有一个庞大的官僚机构。共产主义国家有一个由国家控制和管理的制度。在政治上和经济上实施计划经济,因此需要很多官僚。此外,这些官僚主要是从共产党员中招聘的。东德约有230万名共产党员。东德人口约2000万人,约10%以上的人口是党员出身。而且官僚当中有200万左右。

因此,如果认为官僚大部分都是党员,那么结果大多数共产党员都是国家官僚。与西德相比,可以知道东德有多少官僚。在西德,官僚只占人口的7%左右,然而在东德,官僚只占12.5%。也就是说,从人口构成比来看,东德的官僚数量是西德的两倍左右。统一后,西德政府有必要缩小这种官僚的规模,与此同时,为了清算过去,解雇了相当多的官僚。

为此,统一以后西德政府引进了职业公务员制度。如果说东德不是职业公务员制度,而是共产党员补充官僚的方式,统一后引进了职业公务员制度。结果很多东德官员被解职有两种解告方法。

一个是普通裁员,另一个是特别裁员。普通裁员就是如果官僚缺乏专业性,或者所属机关消失或与其他机关合并,职位消失,就可以进行全面解雇。这是普遍解雇。在官僚职位结束后的6个月后,自动解雇程序被处理。

特别解雇是解雇在有可能侵害人权的政府机关工作的官僚的事例。最具代表性的事例是,在东德秘密警察史塔吉(shitaji)工作的95,000名官僚被解雇。另外,在东德陆军中专门工作的职业军人大部分被解雇。职业军人通过调查专业性和人权侵害,也会被解雇。当东德士兵被并入统一的德国军队时,他们被降级到一个军衔。因此,即使接受了这样的降级,仍有大约11 000名士兵。

当东德官员想要留任时,他们必须经历重新任命的过程。高层官员经过4年的审查。如果是单纯职,经过1年的审查过程,在这种再任用期间,如果过去没有大问题通过的话,就会重新补充为统一政府的职业公务员。

说一下总赦免。事实上,司法处理不是西德居民要求的,而是东德居民要求的。

因为东德居民是受害者。但是,由于司法程序停滞不前,还出现了统一后遗症,强烈要求司法处理的东德居民要求大赦。因为统一之后东德的经济状况很好。由于统一的特效,东德实现了很多经济增长,但统一以后过5年左右的时候,出现了大量失业,东德的生活水平开始下降。因此,随着很多东德居民对前东德体制怀旧和对东德权力带着精英的同情,要求大赦的呼声逐渐高涨。1995年,也就是说,在统一5年后,54%的东德居民表示赞成总赦免。换句话说,在统一5年之后,东德居民现在有一种结束过去清算的态度。从西德的立场来看,只能尊重东德居民的意见。由于东德居民是受害者,受害者要求大赦,西德的立场来看已成为支持全面大赦的立场。

事实上,统一是国家的喜事,无论哪个国家,只要迎来国家的喜事,进行大赦是一个名义。因此,在统一5年后的今天,从国家层面来看,大赦是不可避免的。而且,正如我在司法处理统计数字中所说的那样,司法部已经消极地进行了处罚,大多数人都没有被起诉或受到无罪处分,因此可以说实际上已经赦免了。

第三个清算过去的方式是查明真相。即,确认人权侵害的具体情况,并广泛公开。因此,预防类似的人权侵害再次发生,这就是真相查明处理方式。在德国,联邦议会主导了真相查明。

因此,在联邦议会设立了真相查明委员会。实际上,联邦议会设立了两个调查委员会。一个是国政调查,另一个是真相调查委员会。这两个委员会的区别是在国政调查委员会具有一种准司法权力。因此,国政调查委员可以强制让证人出庭,而真相调查委员会不具有这种强制出席权,可以要求出席。本来在成立有关历史的真相调查委员会时,计划将西德出身和东德出身的议员各补充一半,但实际上组成了东德出身占据多数的真相调查委员会。该委员会举行公开听证会,听取证词和许多专家的意见。因此,这位前东德权力精英出席了听证会并做了许多证词。许多学家和自民间团体的专家提出了意见。

过去关于清算的真相调查委员会分两次进行。第一次真相调查委员会是从1992年到1994年进行的,大体上对东德的共产独裁进行了调查。

调查结果显示,东德议员和东德居民认为,不能只调查东德的错误,有必要调查当时抵抗共产独裁的勇敢市民以及反体制人士的真相,因此成立了第二次真相调查委员会。该委员会从1995年至1998年持续了三年。这两次真相调查的结果,出版了关于真相调查的白皮书。虽然真相调查委员会于1998年结束,真相查明工作已经结束,并不是就此结束,而是作为一个后续事业,从向下一代宣传过去东德独裁的事实、启蒙的角度出发,成立了"东德独裁清算财团"。这个基金会无论是学术研究,还有博物馆、展览会、受害者治疗和独裁公民教育服务。每年从联邦政府得到的预算支援达760万美元。并拥有大约1.2亿美元的基金。这个基金就是从东德共产党拥有的财产中充当的。

还向受害者提供了赔偿。如果受害者因侵犯人权而得到不公正的审判判决,取消那个判决,让他复权了。还做了物质补偿。如果被不当关押,每1个月提供约300欧元的金钱。在此基础上,对政治犯中生计困难的人提供了年金。该年金领取者资格规定,在关押6个月以上的人中,生活困难的人每月可以终身领取300欧元。

韩半岛的分裂和克服课题

1-6 韩半岛统一后过去清算方案

我讲述了德国统一后发生的争议和过去清算的实际情况。那么，果然在韩半岛统一以后，应该如何解决过去清算呢？我认为我们需要一起讨论这个问题。

通常与过去清算有关的类似概念称为“转换器定义”。转换期正义的概念是体制转换后处罚过去政权犯罪的行为。就是为了确立社会正义，惩罚过去的罪行，体制改变的政权将处罚之前体制的犯罪。

转换器定义的契机可能有很多。从殖民地独立时,对符合过去殖民地的势力有定罪。民主化后,也有处罚过去支持过去独裁体制的权力精英的事例。正如统一时德国的事例所显示的那样,对旧共产政权侵犯人权犯罪进行处罚。像这样,独立、民主化、统一等带来了体制的转换,体制转换后对过去犯罪的处罚可以说是转换期正义。

然而，在过去清算的过程中，存在着一个两难境地。

因为对过去犯罪的更严厉的处罚这将成为体制转换后要实现的和解和统合的障碍。再说,过去清算越成功,制度转换后失败的可能性就越大。因为严格惩罚毕竟意味着司法上的处理。因为很有可能招致受到司法处理的旧权力精英们的反对。

因此, 通过研究,

许多关于转换器定义的实证结果已经得到. 从1970年到2008年, 在大约40年的时间里, 在124个国家进行了过去清算。这个时期是体制转换最多的时期。从殖民地独立的国家和实现民主化的国家占多数。

1970年代在南欧实现了民主化, 受此影响, 1970年、80年代初期在南美实现了民主化, 1980年代中后期在亚洲地区的韩国、台湾、菲律宾地区实现了民主化, 最终在1990年代东欧和苏联实现了民主化。这种民主化浪潮带来了大规模的体制变化, 结果, 体制转换后, 根据要求清算过去的呼声, 形成了司法处理等很多清算过去的方式。

但与德国类似, 许多国家在司法处理上感到有限。也就是说, 司法处理的可行性较低, 司法处理越严格, 就会给新体制的稳定带来威胁。

因此, 在这124个国家中, 最常见进行的过去清除方法是司法处理和全面大赦。这两种方法似乎相互矛盾, 但却是理想的结合。也就是说, 虽然初期通过司法处理接受受害者的要求, 最终, 由于低可行性, 实行总赦免的方式。也就是说, 初期司法处理, 后期总赦免的组合是最理想、最普遍的方式。如果有必要, 将完善赔偿和查明真相。因此, 在许多国家, 基本上是通过司法处理和完全大赦来解决的, 根据国家的不同, 通过追加赔偿或追加查明真相的方式进行了过去清算。

韩半岛统一以后, 什么样的清算过去模式比较妥当? 恐怕司法处理比德国的案例还难。因为朝鲜是唯一支配体制, 权力精英是绝对服从最高权力者的体制。因此, 除了最高权力者之外, 任何人都很难认为自发地任意侵犯人权, 是这种极权主义体制。在这种情况下, 如果进行司法处理, 大多数权力精英的反对将不可避免。因此, 认为韩半岛统一以后需要以统一指向型模型。这一模式基于犯罪者的反思和受害者的宽恕的模型。更进一步说, 如果可能的话, 即北朝鲜居民同意并支持的话, 比起加害者, 以受害者为中心的清算过去更为妥当。也就是说, 我认为通过赔偿和查明真相清算过去是最具有统合指向性的模式。

但是这种过去的清算根据以何种方式统一多少会有所不同。如果南北韩之间能够迅速实现统一, 司法措施将不可避免。因此, 首先在初期进行司法处理, 之后进行赦免的模式似乎比较理想。相反, 如果南北逐渐实现统一, 则通过相互协商实现了统一, 因此司法处理看起来很难。因此, 比起司法处理, 属于低处罚的真相查明模式似乎是最理想的。

我来概括一下今天学到的内容。以韩半岛为例, 与德国不同, 1000多年来一直维持统一国家, 目前的分裂历史只有70年。

德国1000多年来一直是一个分裂的国家。德国首次实现统一国家是在1871年俾斯麦时期。从那以后, 德国分裂了。

然后重新统一了。德国认为分裂是理所当然的, 统一是例外现象, 而韩国认为统一是理所当然的现象, 但现在的分裂是例外现象。

但是, 韩半岛的这种分裂是什么时候和怎样形成的呢? 朝鲜半岛的分裂首先始于美国和苏联的分裂和占领。美国和苏联的这种分割占领, 两国进入敌对关系的冷战开始后, 韩半岛出现了两个韩国。也就是说, 韩半岛的分裂既不是外国的错, 也不是内部的错, 而是两个人的错误导致了韩半岛的分裂。

但是韩半岛的这种分裂更加固定化, 就是因为韩国战争才形成的。如今, 大多数韩国国民都希望不久的将来统一。另外, 约80%的韩国人渴望统一。但是, 各代人的统一愿望多少有些不同。以老一辈为例, 统一愿望没有改变, 然而年轻一代的统一愿望多少有所减少。

统一以后, 过去清算是一个不可避免的问题。在德国, 统一后没有进行严格的过去清算。我认为韩半岛也会进行类似于德国的清算。因此, 韩半岛需要统一后统一指向性的清算过去模式。

今天的讲座到此结束。 谢谢。

기타학습요소

<퀴즈>

1.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 ② 일본의 항복
 - ③ 냉전의 시작
 - ④ 두 개의 단독정부 수립

2.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닌 나라는?
 - ① 한국
 - ② 북한
 - ③ 러시아
 - ④ 미국

3. 과거 청산의 방식 중에서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법처리
 - ② 배상
 - ③ 진상규명
 - ④ 화해

4. 과거청산에서 피해자 중심의 처리방식은?
 - ① 사법처리
 - ② 진상규명
 - ③ 총사면
 - ④ 배상

<퀴즈>

5. 한반도 통일 이후 바람직한 과거청산 방법은?

- ① 무자비한 과거청산
- ② 통합지향형 과거청산
- ③ 무조건적인 용서
- ④ 물질적 해결

<토론 주제>

- 독일민족은 얼마나 통일을 원했는지 알아보세요.
- 한반도 통일 방안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알아보세요.
-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세요.
- 베트남의 통일 후 과거청산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세요.
- 한국민은 통일 이후 어떠한 과거청산 방식을 원하는지 알아보세요.
- 탈북민은 어떠한 과거청산 방식을 원하는지 알아보세요.

<참고영상>

-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다음의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57:07, 07:03)
<https://youtu.be/jbGcrdC77Q0?si=5aB6KeKb1Mjn6y1V>
<https://youtu.be/uFFeJ4LL-jU?si=gE1uBjAGC6uvKRcK>
- 통일 후 과거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청해 보세요. (02:19:42)
https://youtu.be/vkX6saAYtxw?si=tYj0m0H_FFIIYzyG